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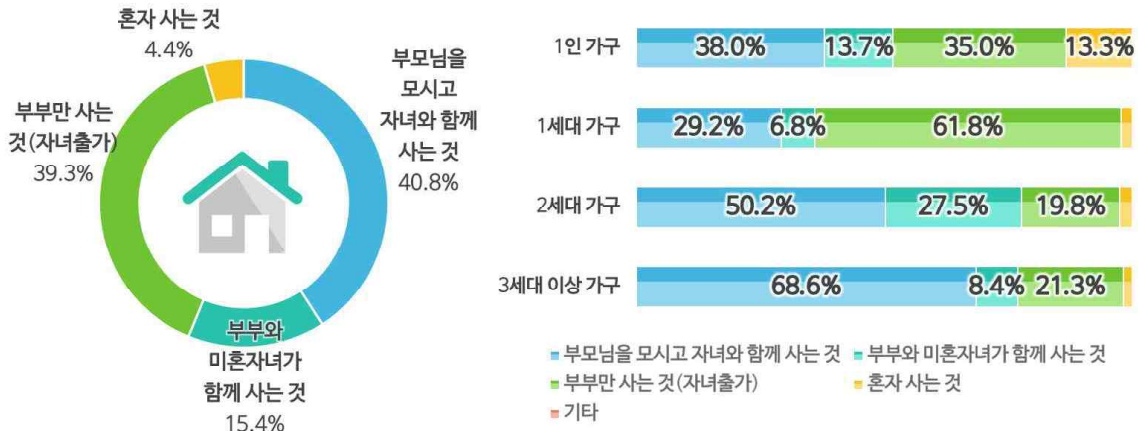
## 2 가구와 가족

### 1) 이상적인 가족구성 형태 (공통)

#### 가족구성 형태는 「부모님 모시고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가장 선호

- 주민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족구성 형태는 「부모님 모시고 자녀와 함께 사는 것」 40.8%, 「부부만 사는 것(자녀 출가)(39.3%)」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부모님 모시고 자녀와 함께 사는 것」, 여자는 「부부만 사는 것(자녀 출가)」을 각각 선호함
  - 세대 구성별로 1인가구, 2세대 가구와 3세대 이상 가구는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와 함께 사는 것」, 1세대 가구는 「부부만 사는 것(자녀 출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 이상적인 가족구성 형태



〈표 2-1〉 이상적인 가족구성 형태

(단위: %)

	계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와 함께 사는 것	부부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것	부부만 사는 것 (자녀출가)	혼자 사는 것	기타
2016년	100.0	40.8	15.4	39.3	4.4	-
남자	100.0	45.5	15.6	35.7	3.2	-
여자	100.0	35.6	15.3	43.4	5.7	-
15~29세	100.0	52.0	27.4	17.3	3.3	-
30~39세	100.0	44.1	29.2	23.6	3.1	-
40~49세	100.0	51.1	27.1	18.1	3.7	-
50~59세	100.0	35.8	15.4	45.6	3.2	-
60세 이상	100.0	35.7	5.2	53.3	5.7	-
1인 가구	100.0	38.0	13.7	35.0	13.3	-
1세대 가구	100.0	29.2	6.8	61.8	2.2	-
2세대 가구	100.0	50.2	27.5	19.8	2.5	-
3세대 이상 가구	100.0	68.6	8.4	21.3	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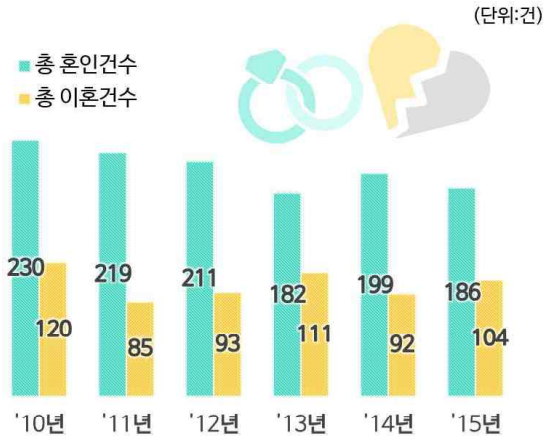
자료: 2016년 신안군 사회조사

## 2) 혼인 및 이혼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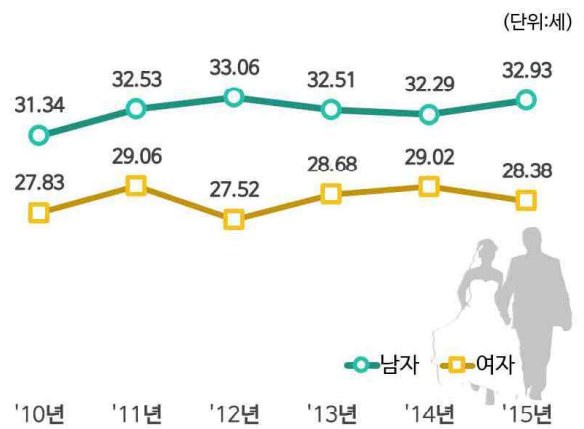
전년에 비해 혼인건수는 13건(6.5%) 감소, 이혼건수는 12건(13.0%) 증가

- 2015년 혼인건수는 186건으로 전년(199건)보다 6.5% 감소
  -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2.93세, 여자 28.38세로 남자의 초혼연령은 전년(32.29세)보다 0.64세 높아지고, 여자의 초혼연령은 전년(29.02세)보다 0.64세 낮아짐
- 이혼건수는 104건으로 전년(92건)보다 12건(13.0%) 증가

〈그림 2-2〉 혼인 및 이혼



〈그림 2-3〉 평균 초혼연령



〈표 2-2〉 혼인 및 이혼

(단위: 건, 인구천명당 건, 세)

연도	총 혼인건수	조혼인율	평균 초혼연령		총 이혼건수	조이혼율
			남자	여자		
2010년	230	5.1	31.34	27.83	120	2.7
2011년	219	4.9	32.53	29.06	85	1.9
2012년	211	4.8	33.06	27.52	93	2.1
2013년	182	4.2	32.51	28.68	111	2.5
2014년	199	4.6	32.29	29.02	92	2.1
2015년	186	4.3	32.93	28.38	104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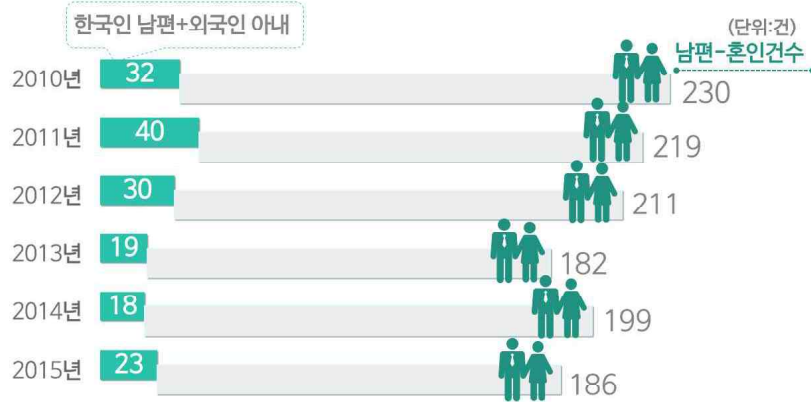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각년도  
 1) 조혼인율(%) = (1년간 총 혼인건수/연앙인구) × 1,000  
 2) 조이혼율(%) = (1년간 총 이혼건수/연앙인구) × 1,000  
 \* 연앙인구: 당해연도의 7.1일 인구

### 3) 외국인과의 혼인 기타

####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 혼인 23건으로 2014년 대비 5건 증가

- 외국인과의 혼인은 2015년 23건으로 2014년(18건) 대비 5건(27.8%) 증가
  -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의 혼인은 23건, 「한국인 아내+외국인 남편」의 혼인은 거의 없음
-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구성비는 12.4%로 전년보다 3.3%p 증가함

〈그림 2-4〉 외국인과의 혼인



〈표 2-3〉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건)

연도	남편-혼인건수 <sup>1)</sup>	한국인 남편+ 외국인 아내	아내-혼인건수 <sup>2)</sup>	한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2010년	230	32	181	...
2011년	219	40	158	...
2012년	211	30	177	...
2013년	182	19	143	...
2014년	199	18	142	...
2015년	186	23	117	...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각년도

주.1) 남편-혼인건수,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 : 행정구역을 남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집계

2) 아내-혼인건수, 한국인 아내+외국인 남편 : 행정구역을 아내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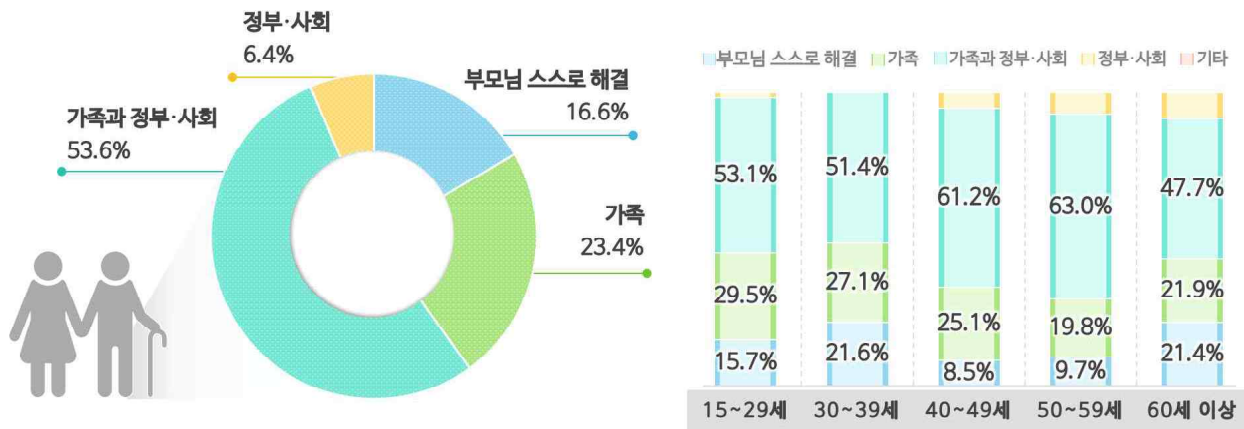
· 수치가 5건 이하인 경우 ...로 표시함

#### 4)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공통)

###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로 「가족과 정부·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많아

-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로 「가족과 정부·사회」가 53.6%로 가장 많았고, 「가족(자식, 며느리, 사위 등)(23.4%)」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 북부권 및 서남부권 모두 「가족과 정부·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가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이 「가족과 정부·사회」가 가장 많게 나타남

〈그림 2-5〉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표 2-4〉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단위: %)

	계	부모님 스스로 해결	가족(자식, 며느리, 사위 등)	가족과 정부·사회	정부·사회	기타
2016년	100.0	16.6	23.4	53.6	6.4	-
중부권	100.0	19.9	26.6	45.2	8.2	-
북부권	100.0	14.8	24.2	53.1	7.8	-
서남부권	100.0	14.5	19.9	62.0	3.7	-
남자	100.0	16.1	23.8	55.0	5.1	-
여자	100.0	17.1	23.0	52.1	7.8	-
15~29세	100.0	15.7	29.5	53.1	1.7	-
30~39세	100.0	21.6	27.1	51.4	-	-
40~49세	100.0	8.5	25.1	61.2	5.3	-
50~59세	100.0	9.7	19.8	63.0	7.5	-
60세 이상	100.0	21.4	21.9	47.7	9.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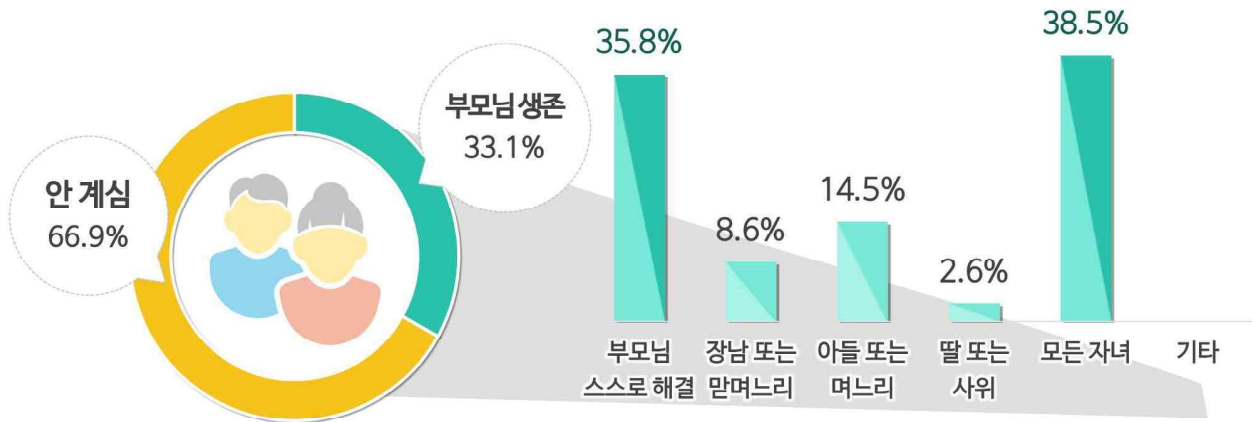
자료: 2016년 신안군 사회조사

### 5)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19세 이상 가구주) (공통)

#### 부모님 생활비는 「모든 자녀(38.5%)」 제공이 가장 높음

- 19세 이상 가구주 본인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심」은 33.1%로 나타났으며, 그 부모님의 생활비는 「모든 자녀」 제공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님 스스로 해결(35.8%)」, 「아들 또는 며느리(14.5%)」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 및 서남부권은 「부모님 스스로 해결」, 북부권은 「모든 자녀」가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는 「부모님 스스로 해결」, 40대 이상은 「모든 자녀」가 부모님 생활비를 부담한다고 나타남

〈그림 2-6〉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



〈표 2-5〉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19세 이상 가구주)

(단위: %)

	계	부모님 생존	부모님 생활비 주 제공자							안 계심
			소계	부모님 스스로 해결	장남 또는 만며느리	아들 또는 며느리	딸 또는 사위	모든 자녀	기타	
2016년	100.0	33.1	100.0	35.8	8.6	14.5	2.6	38.5	-	66.9
중부권	100.0	30.8	100.0	40.5	8.5	13.3	2.5	35.2	-	69.2
북부권	100.0	29.9	100.0	15.3	7.8	32.9	6.2	37.8	-	70.1
서남부권	100.0	37.3	100.0	42.5	9.2	6.2	0.8	41.4	-	62.7
남자	100.0	39.9	100.0	36.0	9.4	15.5	1.5	37.7	-	60.1
여자	100.0	11.0	100.0	33.4	-	3.6	15.1	47.9	-	89.0
19~29세	100.0	100.0	100.0	100.0	-	-	-	-	-	-
30~39세	100.0	96.9	100.0	56.6	-	16.9	-	26.4	-	3.1
40~49세	100.0	75.4	100.0	37.5	5.0	6.7	4.0	46.8	-	24.6
50~59세	100.0	48.4	100.0	27.3	12.3	17.5	2.5	40.4	-	51.6
60세 이상	100.0	7.1	100.0	14.6	22.4	28.1	2.8	32.0	-	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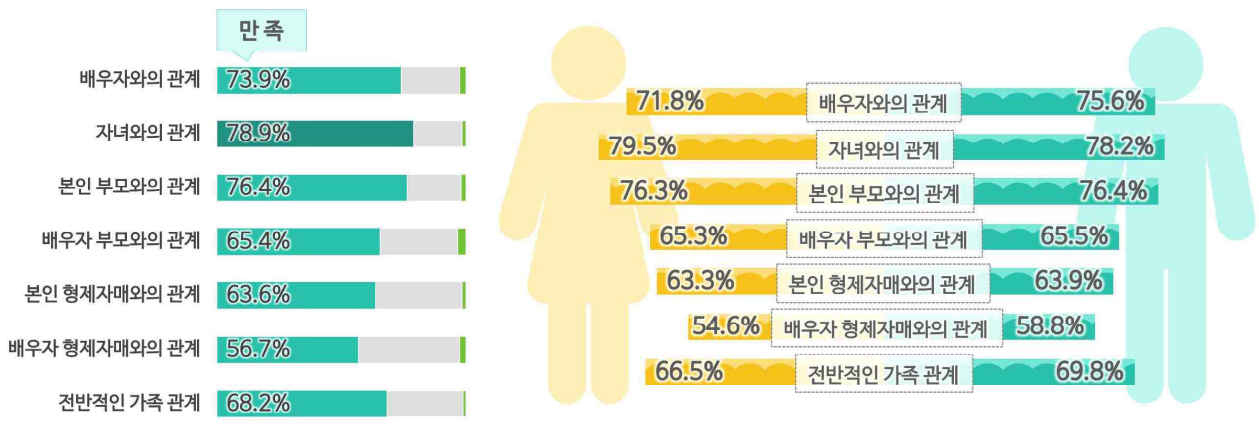
자료: 2016년 신안군 사회조사

## 6) 가족관계 만족도 (공통)

### 전반적인 가족과의 관계, 「만족」 68.2%, 그 중 「자녀와의 관계」가 높아

- 신안군의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68.2%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 6개 영역중 '자녀와의 관계'가 7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배우자의 관계'의 「만족」은 73.9%이며, 남자(75.6%)가 여자(71.8%)보다 높게 나타남
  - '자녀와의 관계'의 「만족」은 78.9%이며, 남자(78.2%)가 여자(79.5%)보다 낮게 나타남
  - '본인 부모와의 관계'의 「만족」은 76.4%이며, 남자(76.4%)가 여자(76.3%)보다 높게 나타남
  -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의 「만족」은 65.4%이며, 남자(65.5%)가 여자(65.3%)보다 높게 나타남
  - '본인 형제자매와의 관계'의 「만족」은 63.6%이며, 남자(63.9%)가 여자(63.3%)보다 높게 나타남
  -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의 「만족」은 56.7%이며, 남자(58.8%)가 여자(54.6%)보다 높게 나타남
- 자녀와의 관계(78.9%) 및 본인 부모(76.4%)에 비해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65.4%),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56.7%)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본인 부모와의 관계' 「만족」은 76.4%로 남자(76.4%), 여자(76.3%)이고,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은 65.4%로 남자(65.5%), 여자(65.3%)로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7〉 가족관계 만족도



〈표 2-6〉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계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배우자와의 관계	100.0	73.9	39.0	34.8	23.5	2.6	2.0	0.6
남자	100.0	75.6	42.4	33.2	21.7	2.7	2.1	0.6
여자	100.0	71.8	35.0	36.8	25.6	2.6	2.0	0.6
자녀와의 관계	100.0	78.9	44.3	34.5	19.6	1.6	1.0	0.5
남자	100.0	78.2	45.9	32.3	19.9	1.9	1.1	0.8
여자	100.0	79.5	42.8	36.7	19.3	1.3	1.0	0.3
본인 부모와의 관계	100.0	76.4	46.8	29.6	21.5	2.1	1.3	0.8
남자	100.0	76.4	49.3	27.2	21.7	1.8	1.1	0.7
여자	100.0	76.3	42.6	33.7	21.2	2.5	1.6	0.9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100.0	65.4	33.8	31.6	31.1	3.5	3.3	0.3
남자	100.0	65.5	35.0	30.5	31.9	2.6	2.2	0.4
여자	100.0	65.3	31.9	33.4	29.7	5.0	5.0	-
본인 형제자매와의 관계	100.0	63.6	29.0	34.7	34.8	1.6	1.4	0.2
남자	100.0	63.9	31.8	32.2	34.0	2.1	2.0	0.1
여자	100.0	63.3	25.8	37.6	35.7	1.0	0.7	0.3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100.0	56.7	22.3	34.4	40.6	2.7	2.2	0.5
남자	100.0	58.8	23.8	35.0	38.2	3.0	2.4	0.6
여자	100.0	54.6	20.8	33.8	42.9	2.5	2.0	0.5
전반적인 가족 관계	100.0	68.2	31.8	36.4	30.5	1.3	1.2	0.1
남자	100.0	69.8	35.5	34.3	28.6	1.6	1.5	0.1
여자	100.0	66.5	27.7	38.8	32.5	1.0	1.0	-

자료: 2016년 신안군 사회조사  
주. 해당 없음 제외